

# 아빠의 선물\*

장지혜(2014년 제10회 5·18문학상 수상작)

1983년, 그 해, 나는 열 두 살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직도 어두컴컴한 방안엔 아빠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몇 번 눈을 깜빡이자 방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저기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누런 벽지. 침대 아래쪽에서 누에고치처럼 이불을 돌돌 만 채 잠이 들어있는 아빠의 모습.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하단칸방의 풍경에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양치질을 했다. 밖으로 나가면 마당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냄새가 너무 심했다. 세수를 하고 수건을 찾으려는데 선반위에 쪽지가 놓여있었다. 그러자 엄마의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진아. 일어났니? 아침 밥 해놓았으니깐 꼭 먹고 가, 그리고 아빠도 좀 챙겨드리렴.>

나는 석유곤로 위에 올려져있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다. 엄마가 이른 새벽에 끓여놓고 나갔는지 벌써 차갑게 식어있었다. 나는 미역국을 데우려고 성냥을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부엌에는 성냥갑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 서랍장에 있나 싶어서 방으로 가 서랍을 뒤져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도 성냥갑은 없었다. 그런데 맨 아래쪽의 서랍을 열자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소지품들이 나왔다. 큼지막한 카메라. 빛바랜 기자증, 일기장, 작은 사진첩 등 모두 아빠가 신문사에 다닐 때 쓰던 물건들이었다. 조심조심, 아빠가 쓰던 카메라를 꺼냈다. 네모반듯한 검은 색 몸통에 커다랗고 둥근 렌즈가 달린, 이 사진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닐 때 아빠는 정말 멋져보였다. 한쪽 눈을 찡긋 감고선 카메라 렌즈에 오른쪽 눈을 갖다 대자 투명한 렌즈를 통해 방안이 보였다. 구질구질한 단칸방의 모습도 렌즈 속에선 웬지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사진기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는데 사진첩에 적혀 있는 글씨가 눈에 띄었다. 검은색 매직펜으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라고 적힌 글씨가,

‘이 사진첩은 뭐지? 아빠가 사진 기자 할 때 찍은 사진들인가?’

사진첩을 꺼내는데 잠을 자고 있는 아빠가 일어나기라도 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빠는 평소에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셨다.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다.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커다란 술을 올려놓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김이 펄펄 나는 국에 밥을 말아먹는 아저씨들의 표정들까지, 흑백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꼭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처럼 비장해 보였다. 다음 사진엔 어느 건물 앞에서 버스들이 일렬로 서 있고 개미떼처럼 모여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팽팽한 긴장이 느껴지는 사진이었다.

‘1980년 5월 20일이면 .... 삼년 전에 찍은 사진이네!’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긴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그만 사진첩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밥도 못 먹고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오는 길. 학교로 걸어가면서도 아까본 사진이 계속 떠올랐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고 굴비처럼 줄줄이 밧줄에 묶인 사람들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사진. 아빠가 찍은 게 맞을까? 그럼,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던 것일까. 아까 본 사진이 자꾸만 생각나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야, 이 진!”

교문으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니, 살았던 선경이었다. 선경이는 나를 보자마자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너 정말 길 건너 판자촌으로 이사 갔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래?”

“우리 아파트 애들이.”

“아, 아니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다.

“어?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사를 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집에 빨간 딱지도 붙었다는데?”

문득 빨간 딱지가 붙여진 채로 실려 나가던 물건들이 떠올랐다.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금성 컬러 텔레비전과 내 방에 있던 피아노,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나던 자전거까지.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화난 표정으로 운동장을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선경이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야, 유 승호, 개 있잖아. 네가 말도 없이 이사가버렸다고 무진장 화났더라!”

우리 반 반장, 유 승호. 승호는 일곱 살 때부터 결혼하자고 나를 쫓아다니던 녀석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도 손 붙잡고 같이 다녔고 이학년, 사학년, 그리고 오학년이 된 지금도 같은 반인 내 남자 친구. 같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무진장 싸웠고 오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좀 서먹해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아끼던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붙은 날부터 나는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쓰리고 아픈 마음에도 딱지라는 게 생겨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말이다.

승호는 수업 시간 내내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런 승호를 일부러 모른 척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면서 일부러 더 크게 웃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진! 잠깐 이리로 나와 볼래.”

책상 앞에 앉아 뭔가 열심히 쓰고 있던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 이사 갔니?”

“네.”

“언제?”

“저번 주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말했어야지. 어디로 갔는데?”

“.....요 앞에 산 266번지로요.”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산 266번지란 말을 들었는지 선생님 책상 바로 앞쪽에 앉아있던 남자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무어라 속삭이며 키득거렸다. 우리 학교에서 266번지란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었다.

“음..... 그래? 그럼 전학은 안 해도 되겠구나. 바뀐 주소는 알아?”

“아니요, 아직 못 외우는데요.”

“내일까지 알아 와라, 알았지?”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나가자 키득거리던 남자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야, 어디서 쓰레기 냄새 나지 않냐?”

“아니, 난 똥냄새가 나는데, 어이구, 지독해라.”

그러자 다른 분단에 있던 아이들까지 우르르 몰려왔다.

“무슨 소리야?”

“야, 글썄, 우리 반 부반장이 판자촌으로 이사 갔대.”

그러자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장난이 제일 심한 엄 태웅이 내 어깨를 기분 나쁘게 툭 치며 말했다.

“야, 거기 쓰레기장이라며?”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눈물을 꼭 참고 내 자리로 돌아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호가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다짜고짜 태웅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나쁜 새끼들! 한번만 더 진이 놀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승호를 쳐다보았다. 얼떨결에 얻어맞은 태웅이는 얼굴을 감싸 안으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누구보다 제일 놀란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 역시 승호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처음 보았으니까.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가방을 획 던져버리고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이 툭툭 붓도록 울었다. 실컷 울고 나면 조금은 시원해지니까. 휴지를 찾으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책상 위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풀고 있는데 아침에 보았던 아빠의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겉표지가 낡은 가죽으로 된 일기장. 문득 아침에 본 사진이 생각나 온몸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 아빠의 일기장엔 뭔가 적혀 있을 지도 몰라’

휴지로 코를 땡하고 풀고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맨 앞쪽으로 넘겨보니 정말 그때 쓴 일기가 있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까지 걸어서 갔다. 모두들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난 가야만 했다. 이건 나의 일이다. 태풍이 오면, 태풍 속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속으로 가야 하는 기자의 일. 가방 속에 사진기를 분해하여 몰래 넣었다. 시내에 들어서자 최루가스가 안개처럼 뿌옇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1980년 6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되었을까. 내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건장한 사내들이 편집국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나를 끌고 갔다. 신문사 현관 입구에는 총을 든 무장군인들이 서 있었고 남영동 치안본부로 끌려

가 영문도 모른 채 한 시간을 맞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는 단 한 가지, 광주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였다.

딱 거기까지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뭐하는 거냐?”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수염도 깎지 않았는지 덩수룩한 수염에 까칠해진 얼굴을 하고선. 아빠는 내가 들고 있던 일기장을 낚아채며 심하게 야단을 쳤다.

“아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특히 남의 일기장은 몰래 보는 게 아니다. 알았어?”

나는 대답도 없이 밖으로 나왔다.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내려가다가 뺨쪽 튀어나온 수도관에 하마터면 머리를 박을 뻔 했다.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자촌을 빠져나와 마을 입구에 있는 공터까지 내달렸다. 텅 빈 공터엔 어슴푸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넓고 긴 의자에 앉아 길 건너, 전에 살던 아파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기 살적엔 몰랐는데 층층이 켜져 있는 불빛이 참 따뜻해 보였다. 문득 낮에 엄 태웅을 때리던 승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자질쟁이 엄 태웅이 분명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렸을 텐데. 내일 담임선생님께서 알게 되면 승호를 혼내시겠지.

“진아! 왜 나와 있어?”

반가운 엄마 목소리. 돌아보니 계란 한 판을 들고 서 있는 엄마가 보였다. 부스스한 파마머리, 야윈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가 신문사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모님 소리를 듣던 엄마였는데. 얼마 전부터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진아,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멀리 가자고 했잖아. 이왕 이사 갈 거면!”

내가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안쓰러운 표정으로 날 내려다보던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매일 집에만 있는 아빠두 미워, 정말 다. 싫단 말이야!”

“진아. 아빠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 아빠 잘못이 아니야. 진이 너 어려서 잘 생각나지 않겠지만 아빠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 둔 게 아니라.....강제로 쫓겨나신 거란다.”

내 나이 아홉 살 때, 엄마 말대로 어리긴 했지만 그날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온 아빠의 모습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으니까. 입고 있던 양복은 여기저기 찢겨져 있었고 얼굴엔 시퍼런 멍까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아빠는 신문사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 얼마동안 안 녀 나간 표정으로 지내던 아빠는 <불의부정에 타협하지 말자>라고 크게 써서 네모난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기도 했다. 나는 저게 뭐냐고 물었고 아빠는 아빠가 새로 만든 가훈이라고 했다. 어린 마음에 절대로. 나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는 말인 줄만 알았던 우리 집 가훈.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물었다.

“그때 왜 쫓겨나신 건데?”

“.....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을 찍으셨거든”

순간, 아침에 본 사진이 떠올랐지만 모른 척하고 다시 엄마에게 물었다.

“어떤 사진인데?”

“진아. 네가 조금만 더 크면 엄마가 다 말해줄게. 그건 진실을 알리는 사진이었어. 세상에 그런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진아. 아빠가 다시 신문사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다시 저기로 돌아가자.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알았지?”

엄마는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왠지 슬퍼보였다.

“애한테 욕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르지 않나. 선생님, 반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선생님께 출석부를 갖다드리기 위해 교무실에 내려갔을 때였다. 일부러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말로는 승호에 대한 말들이 오고가는 것 같았다. 나는 문틈으로 교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승호랑 진이랑 친하니까 승호가 진이를 감싸주려고 그랬다는데……. 어머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만 이해해주시죠.”

난처한 표정으로 서있는 선생님이 보였다. 선생님의 부탁에도 엄 태웅 엄마로 보이는 아줌마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는지 눈 꼬리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선생님. 저 도저히 이대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반장을 바꾸든지 해야지. 원”

그 말에 옆에 있던 승호 엄마가 발끈했다.

“아니 태웅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학기 중에 임명된 반장을 어떻게 바꿔요. 저희 아들이 무슨 죽을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태웅이랑 싸웠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하시죠.”

그러자 태웅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승호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

“승호 엄마. 우리 태웅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 원 참, 속상해서……”

승호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승호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절대로 우리 승호가 주먹질 같은 걸 하는 아이가 아닌데. 하여튼 진이네 집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요. 진이네 아빠가 빨갱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원.”

그 말에 방금 전까지도 티격태격 싸웠던 태웅이 엄마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거들고 나서는 게 아닌가!

“하긴 그래요. 정부가 막아서 취직도 못한다는데. 빨갱이 아니면 왜 그러겠어요.”

이상하게도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우리 집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다. 참다못한 나는 교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우리 아빠 빨갱이 아니에요!”

내가 소리치자 교무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다. 과랴게 질린 채 교무실 문 앞에서 있는 나에게로.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선생님이 침착한 얼굴로 엄마들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주의를 줄 테니까 이만들 가보시죠.”

할 수 없다는 듯 돌아서며 태웅이 엄마가 당돌한 아이라며 혀를 찼다. 승호엄마는 교무실을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안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 진! 너 어서 이리 들어와!”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선생님 앞으로 갔다. 선생님은 엄마들을 상대하느라 힘이 드셨는지 선생님 자리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옆자리에 있는 빈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진이도 여기 앉아.”

내가 의자에 앉았는데도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한참 만에 말을 꺼내셨다.

“진아. 선생님도 알아. 너희 아빠 빨갱이 아닌 거, 너희 아버님은 해직언론인이셔.”

혼이 날 줄만 알고 잔뜩 풀이 죽어 있던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넌 아직 어려서 그게 뭔지 잘 모르겠구나, 1980년도에 우리나라엔 참 슬픈 일이 많았단다. 오월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해 가을엔 많은 기자 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일자리를 잃으셨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사진을 찍는 기자 할 것 없이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이야. 너희 아빠도 그 중의 한 분이고…….특히 진이 아버지는 광주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고문까지 당하셨다고 하더구나.”

나는 깜짝 놀라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찾아오셨더라.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진이 네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런데 엄마에게 진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깐 진이 아버지가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멋진 아버지.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살짝 기지개를 펴는 것만 같았다.

“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려고 위협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셨잖아. 진아. 그러니까 진이 너도 그냥 아빠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잖아? 그치? 그러니깐 딴 생각 말구 열심히 해봐, 알았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선생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이제 가봐.”

동네로 들어가는 공터에 승호가 서 있었다. 나는 주춤거렸다. 빙 둘러갈까, 아니면 다시 학교 쪽으로 되돌아갈까, 무엇보다 승호에게 허름한 판자촌 골목으로 킁킁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다시 뒤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승호가 나를 불렀다.

“진아.”

등 뒤에서 들리는 승호의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거렸다. 나는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심드렁하게 말했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너 화났다면. 정말 우리 엄마까지 그럴 줄은 몰랐는데…….진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승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청치마 아래 검정 구두를 신은 발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 진. 그런데 나도 너한테 무지무지 화났었어. 나한테만은 이사 간다고 말해줄 줄 알았거든.”

그 말에 갑자기 또 화가 났다. 나는 승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너 같으면 이런 동네로 이사 간다고 말하고 싶었겠어?”

그러곤 뒤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자 뒤따라오는 인기척 소리가 들렸다. 나는 좁은 골목으로 정신없이 뛰었다. 그러자 승호도 뛰었다. 가파른 계단까지 단숨에 오르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뒤돌아서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왜 따라 오냐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승호가 주춤거렸다. 승호는 크고 순한 눈을 깜빡거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승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가방을 맨 채 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동안 내 눈치를 살피던 승호가 쭈뼛거리며 한 계단 밑에 신발주머니를 깔고 앉았다. 우리가 앉은 계단으로 등산복을 차려입은 아저씨 한 분이 물통을 들고 지나갔다. 그러자 승호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다.

“저 위에 산이 있어?”

“그런가봐. 엄마가 그러는데 약수터도 있대.”

“쿵쿵.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좋구나.”

코를 벌렁거리는 승호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자 승호가 헤벌쭙 웃었다. 승호를 보니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뛰어놀고 자전거를 썹썹 타며 아무 것도 모르던 그 때로.

승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에서 아빠의 일기장을 꺼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아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쩐지 말로 하기에는 쑥스러운 한 마디. 나는 책상에 앉아서 스탠드 불을 켰다. 그리고 아빠가 즐겨 쓰는 만년필이 끼워져 있는 부분을 펼쳐보았다. 거기엔 아빠가 어제 쓴 일기가 있었다.

1983년 5월 20일

해마다 이맘쯤이면 광주가 떠오른다.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말이다. 내가 찍은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신문사에서 쫓겨난 지 삼년. 아직도 나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도 이력서를 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진이가 내 일기장을 보고 있었다. 화를 내고 한바탕 야단을 쳤는데 가슴이 아프다. 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더 읽으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는 눈물을 꼭 참고 아빠의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곤 아빠가 써 놓은 어제 일기 밑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눌러썼다.

‘진이는 아빠가 참 자랑스롭습니다.’

이크!. 아빠가 일기장 훑쳐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 아래, 추신이라고 쓰고선 한 문장을 덧붙여 썼다.

‘참. 아빠. 이제 다시는 아빠 일기장 몰래 보지 않을게요!’

일기장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고 나니 졸음이 몰려왔다. 스탠드를 끄자 방안이 한밤중처럼 어두워졌다.

“진아. 일어나야지! 초저녁부터 잠을 자더니, 아침까지 늦잠을 잘 거냐?!”

좁은 지하방 창문으로 희뵘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아침이라고요? 어? 죄금만 잔 거 같은데 ”

아빠까지 일어난 걸 보면 시간이 꽤 지났을 것만 같았다.

“학교 늦었겠다. 어떡하지 ?”

내가 허둥거리자 아빠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아. 오늘 개교기념일이라며?”

아빠의 말에 나는 ‘휴우’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빠랑 산에 약수 물 뜨러 갈까?”

순간 나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빠를 쳐다보자 아빠가 사진기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빠가 진이한테 이 사진기 물려주려고. 주인이 사용법을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려고, 혹시 또 모르지. 진이가 이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좋은 사진기 하나 사줄지도. 허허”

집에서 가까운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상쾌한 오월의 바람에 봄꽃들이 오소소 몸을 떨었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아빠의 한 쪽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다. 아마도 사진 기사를 할 때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닌 탓일 것이다. 아빠는 라일락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염까지 말끔하게 깎은 얼굴이 정말 보기 좋았다.

“자. 진아. 이건 저절로 렌즈가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진기야. 어때? 보이니?”

나는 아빠의 설명대로 한쪽 눈을 감은 채 다른 한 쪽 눈으로 렌즈 속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하얗게 피어난 라일락 꽃망울이 팝콘처럼 크고 탐스럽게 잡혔다. 아주 작고 작은 것까지도 크게 보이는 사진기가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찍고 싶은 순간이 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 검지로 누르면 돼. ‘

찰각, 찰각, 찰카닥. 아빠의 말대로 나는 신나게 셔터를 눌렀다. 이왕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찾아내서 아름답게 찍어주고만 싶었다. 산 아래 내려다보이는 266번지의 가난한 풍경도, 그리고 오월의 나

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까지도.